

Journal of Japanese Culture

日本文化學報

•第 104 輯•

2025. 2

韓國日本文化學會

目 次

특집

일본어 어휘의 수출과 수입 양상에 대한 연구 동향

- 구글 트렌드 데이터로 본 일본어 외래어 유의어 쌍의 의미와 사용 이 현 정 ... 5
—確認・チェック, 取り消し・キャンセル, 接続・アクセス 사례를 중심으로—
- 우리나라 화학 술어의 유래 주 혜 정 ... 27
—「東京化学會誌」의 ‘譯語’를 중심으로—

문화

- 사이고쿠 순례 관음상 유래설화의 신목(神木)과 신불습합 신앙 김 용 의 ... 51
—『西国三十三所観音靈場記図会』의 관음설화를 사례로 하여—
- 일본의 저출산·고령화와 중등 교육 엄 태 봉 ... 75
—중학교 공민 교과서를 중심으로—
- 데즈카 오사무와 미그25사건 이 문 호 ... 93
—『블랙잭』 「하늘에서 온 아이」를 중심으로—
- 문화콘텐츠의 소재발굴에서 문자화까지 정 상 철 ... 117
—조선인의 류큐(琉球) 표류를 중심으로—
- 일본 자민당의 정치문화 다양성 분석 쓰쓰미 가즈나오 ... 135
—아베 신조·이시바 시게루 두 총리의 역사인식을 중심으로—

문학

- 시손카가미(子孫鑑)』에 보이는 조닌(町人)에 대한 교훈 일고(一考) 고 영 란 ... 151
—우키요조시(浮世草子)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오사키 미도리(尾崎翠)의 「제7관계 방황(第七官界彷徨)」 속 방황 김 선 영 ... 167
- 한국전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 소 명 선 ... 183
—1950년대에 발표된 소설 작품을 중심으로—
- 재일(在日)작가 고 가쓰히로(呉勝浩)의 추리소설과 서사 전략 양 명 심 ... 203
—『도덕의 시간』과 『폭탄』을 중심으로—

어학·교육

- 「朝鮮信使御供衆書上並朝鮮語和解」의 朝鮮語カナ表記について 金 文 姬 ... 219
—母音を中心に—
- 韓国の日本語教育における会話教材の現状 尹 楨 勛 ... 251
—2016年～2023年に出版された日本語会話教材を中心として—
- 祝詞(のりと)・宣命(せんみょう)의 助詞 「ト(止/等/登)」 이 지 수 ... 267
- 협동 학습을 중심으로 한 TBLT 기반 비즈니스 일본어 수업 실천 연구 .. 이 현 진 ... 287
- 일본 소설에 나타난 문화소의 한국어 기계번역 오류 유형 고찰 윤 호 숙 ... 313
—인간번역과의 비교 분석—

■ 合評會	331
■ 韓國日本文化學會 任員名簿	333
■ 韓國日本文化學會 會則	341

일본 자민당의 정치문화 다양성 분석

—아베 신조 · 이시바 시게루 두 총리의 역사인식을 중심으로—

쓰쓰미 가즈나오*

(e-mail : tsutsu_k@yahoo.co.jp)

<목 차>

- | | |
|--------------|--------------------|
| 1. 들어가기 | 3. 분석과 결과 |
| 2. 연구목적 및 방법 | 3.1. 아베 신조의 역사인식 |
| 2.1. 연구목적 | 3.2. 이시바 시게루의 역사인식 |
| 2.2. 연구방법 | 4. 나가기 |

キーワード : 安倍晋三(Abe Shinzo), 石破茂(Ishiba Shigeru), 政治文化(Political Culture), 歴史認識(Historical Perception), 多様性(Diversity)

1. 들어가기

본고는 1955년부터 현재까지 일본에서 장기간 집권당으로 정권을 유지해 온 자유민주당(自由民主党, 이하 자민당)의 정치문화의 다양성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이하 아베)와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이하 이시바) 두 총리의 역사인식 비교를 통해 분석한다.

본고에서 다루는 역사인식이란 메이지 시대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 일본의 주변국에 대한 행위와 관련된 인식을 뜻한다. 이 역사 인식과 관련하여 한국에서는 식민지 지배로부터의 독립 이후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을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며, 선행 연구도 축적되어왔다. 한국 뿐만 아니라 중국, 나아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일본의 역사인식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 오사카 경제 법과대학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 객원연구원, 국제관계론

본고에서는 일본 집권당 정치인들의 역사 인식의 다양함을 아베 신조와 이시바 시게루 두 정치인의 역사 인식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및 방법

2.1. 연구목적

본고의 연구목적은 일본에서 1955년부터 현재까지, 몇 년간의 중단기를 제외하고, 장기간 여당으로 정권을 이끌어온 자민당의 정치문화의 다양성을 아베와 이시바 두 총리의 역사 인식을 통해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정당이란 유사한 이념과 사상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구성원들의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자민당은 정치문화가 다양하다는 것을 본연구를 통해 증명하고자 한다.

아베와 이시바를 거론한 이유는, 전자는 기시 신스케(岸信介, 이하 기시)의 영향을 받았고, 후자는 이시바시 단잔(石橋湛山, 이하 이시바시)의 영향을 받으며 각각 집권했기 때문이다.

이시바시는 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일본이 식민지와 '만주국'의 지배를 포기하는 소일본주의를 주장했고, 전후 1956년 12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미일관계 강화를 주장하는 기시에게 근소한 차이로 이겼으며, 총리가 되었다.

한편, 기시는 2차 세계대전 이전에 '만주국'의 경제 계획 수립에 참여한 인물이었고, 전후에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시에게 패했지만, 이시바시가 건강악화로 2개월 만에 사임한 후 총리가 되었다. 그리고 약 3년반의 재임 기간 동안, 대규모 데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일 안보조약 개정을 실현하였다. 대규모 데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일 안보조약 개정을 실현하였다.

정치 평론가인 호사카 마사야스(保阪正康)는 이 개정 전 이시바시가 개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기시에게 보낸 사실을 언급하며, 기시와 이시바시의 사상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¹⁾. 기시와 이시바시의 경력과 사상 차이로부터 자민당이라는 정당의 다양성과 폭넓음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아베에게 있어 기시는 할아버지였으며, 미일 안보조약 반대 시위로

1) 保阪正康 (2021) 『石橋湛山の65日』 東洋経済新報社, p. 245.

강한 비판을 받았던 기사에 대해 아베는 자신이 “가족이지만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저작에서 언급했다²⁾. 한편, 이시바는 2024년 취임 직후 소신 표명 연설³⁾과 2025년 시정 방침 연설⁴⁾에서 각각 이시바시 단잔을 강조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아베는 총리 재임기간이 길었던 만큼 그의 정권운영과 관련한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신정화(2018)⁵⁾, 노병호(2018)가 있다⁶⁾. 신정화는 문재인과 아베의 갈등에 주목하며, 두 지도자가 새로운 국가상을 제시하려 했다는 공통점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 초기부터 서로를 부정적으로 바라본 것이 갈등의 심화를 초래했다고 분석하였다. 노병호는 아베의 어린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그의 할아버지인 기시신스케가 이르지 못한 헌법개정을 실현하는 것이 아베에게 있어 중요한 정치이념으로 자리잡았음을 강조했다.

일본에서는 도고 가즈히코(東郷和彦 2018)⁷⁾, 시노다 도모히토(信田智仁 2018)⁸⁾를 들 수 있다. 도고는, 아베가 이해득실을 넘어 미국이 주도한 기존 체제를 재구축하려 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역사인식의 재정립이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시노다는, 아베가 리더십을 가진 정치가였음을 인정하며, 특히 대미 협상에 있어서 장관급 인사들에게 권한을 위임한 점이 엿보였다고 언급했다.

반면 이시바는 작년 11월에 총리직에 취임하여 재임기간이 짧아, 필자가 확인한 범위에서는 그의 정권운영에 관한 선행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있다.

그러나, 아래 2.2.에서 언급하듯이 이시바는 아베와 대조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정치인으로, 총리직을 둘러싸고 여러 차례 당내 선거를 치른 경력이 있다. 따라서 두 사람의 비교를 통해 아베의 역사 인식을 더욱 명확하게 파악할 수

2) 安倍晋三 (2006) 『美しい国へ』文藝春秋 (文春新書)、p.24.

3) <https://www.kantei.go.jp/jp/103/statement/2024/1129shoshinhyomei.html> (검색일:2025.2.10.)

4) <https://www.kantei.go.jp/jp/103/statement/2025/0124shiseihoshin.html> (검색일:2025.2.10.)

5) 신정화(2019) 「문재인 정권과 아베신조 정권의 ‘새로운 나라’ 만들기-불신과 갈등의 확산-」 『일본연구논총』 Vol.50, 현대일본학회, pp.116-142, pp.134-135, pp.137-138.

6) 노병호(2018) 「아베신조와기시노부스케-기시 노부스케의 계승자임을 참칭하는 과정·방식·의의-」 『일본사상』 Vol.0 No.35, 한국일본사상학회, pp.201-232, pp.216-217, p.228.(DOI: <https://doi.org/10.30615/kajt.2018.35.8>)

7) 東郷和彦(2018) 「安倍晋三の『戦後レジームからの脱却』-文化と伝統の視点から-」 『京都産業大学世界問題研究所紀要』 30巻、京都産業大学世界問題研究所, pp. 3-12, p.5, p.11.

8) 信田智人(2018) 「安倍晋三首相と日本の外交・安全保障政策」 『国際安全保障』 46 (1)、国際安全保障学会, pp. 68-87, p.72, pp.84-85.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2. 연구방법

본고의 연구방법은 쓰쓰미 가즈나오(堤一直 2015)가 사용한 관계자의 언론 분석이다⁹⁾. 구체적으로는 이시바, 아베 두 총리가 저술한 저서 및 대담집의 언론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이시바와 아베 두 총리의 저서를 연대순으로 다수 검토하기로 한다. 이들 저서 중에는 자민당 총재 선거를 염두에 두고 집필된 것도 포함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그러한, 선거를 의식해서 쓰인 책뿐만 아니라 그 이전 혹은 이후의 책도 확인함으로써 역사 인식의 일관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총리 취임 이후의 담화 등 중요 발언도 다루어 저작물 및 대담집과의 연관성에도 주목하여 고찰할 것이다.

비교 연구에서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모두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공통점으로는 두 인물의 연령과 정치경력에서의 궤적을 들 수 있다. 아베의 경우 그는 1954년생으로 2005년에 관방장관이라는 각료직에 취임했다. 당시의 총리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이고 2001년 4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총리직을 수행했다. 아베는 고이즈미의 사임에 따른 총재선거에서 대립 후보를 큰 차이로 누르고 자민당 총재로 선출되어 총리에 취임했다. 취임 1년 후인 2007년 9월 본인의 의사로 사임하고 제1차내각은 단기간에 종료되었다. 그러나 2012년 12월에 다시 총리직에 복귀하여 2020년 9월까지 7년 9개월 동안 장기집권을 이어갔다. 아베 제2차 내각의 연속 재임일수는 2,822일이며, 제1 및 제2의 통산 재임일수는 3,188일로, 이는 1885년 이후 일본 헌정사상 역대 최장기간에 해당한다.

한편, 이시바는 1957년생으로 2002년 방위청장관에 임명되며 각료직에 올랐다. 당시의 총리는 아베와 마찬가지로 고이즈미였다. 이시바는 아베보다 일찍 장관직에 취임했으나, 이후 2012년, 2018년, 2020년 총재 선거에서 모두 낙선하였다. 세 번의 총재 선거에서 당선된 것은 아베였으며, 2012년과 2018년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의 득표율은 아베에 이어 2위였다. 또한, 아베의 사퇴 후 치러진 2020년 총재 선거에서도 낙선하였으나, 2024년 8월에 실시된 총재 선거에서

9) 堤一直(2015)、张东方译、「通过安倍主要演讲和著作看其对中韩的认知」『东北亚论坛』No.6、2015 Total No.122、《东北亚论坛》编辑部、pp. 114-123、p.115.

마침내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이와 같이 두 인물은 연령대가 비슷하며 2000년대 고이즈미정권에서 각료직을 역임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편, 총재선거에서 서로 경쟁했다는 점은 두 사람 간의 중요한 차이점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대결은 단순한 정치적 경쟁을 넘어, 정치에 대한 사고방식이라는 심층적인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베가 회고록에서 외교정책과 관련하여 “생각이 너무 다르다”고 언급한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당사자들의 발언은 그들이 선거를 의식하여 발언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로 실천하지 않거나 자신을 정당화하는 경우일 수 있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발언 중에서 그 안에 포함된 사상이나 이념이 현실의 정치 활동에 반영된 것들을 선택하여 다루었다. 다시 말해, 발언과 행동이 일치한 경우에만 그 발언의 배경에 있는 사상이나 이념을 고찰하였다.

예를 들어,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관련하여 아베는 실제로 참배를 했으나, 이시바는 참배가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시기에는 참배를 하지 않았다는 차이가 존재한다. 즉, 아베는 매파(강경파적) 사상을, 이시바는 비둘기파(온건파)적 사상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행동이 확인된다.

또한, 자기 정당화에 관해서는, 예를 들어 두 사람의 저서에서 가케이학원 문제에 대한 입장이 다르지만¹⁰⁾, 이러한 비리에 관한 내용은 다루지 않았고, 또한 두 사람의 정치인으로서의 경로에서 한일 관계와 관련된 이해 관계나 비리에 관한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자료 중 『아베 신조 회고록』은 본인의 사후에 출판되었으므로, 제3자가 원고를 수정했을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베의 부인이 원고를 그대로 출판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경위가 있었다¹¹⁾. 또한, 후에 인용한 회고록에는 한일 간 역사문제에 대해 아베의 강경한 입장을 뒷받침하는 인식이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분석자료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이상으로 본 논문에서 다룬 자료들은 일정한 신뢰성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10) 安倍晋三 (2023) 『安倍晋三回顧録』中央公論新社、pp.305-306. 및 石破茂 (2018) 『政策至上主義』新潮社、pp.77-81.

11) 앞의 책, 安倍晋三 (2023) p. 6.

3. 분석과 결과

3.1. 아베 신조의 역사인식

아베의 초기 역사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저작이 2006년의 『아름다운 나라로』이다. 이 저작은 아베가 총리로 취임한 2006년 9월보다 두 달 앞선 7월에 출판되었기 때문에 총재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작성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측은 두 가지 이유로 다른 총리와 비교했을 때 크게 부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첫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큰 차이로 승리한 것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인기를 얻기 위한 정책을 내놓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둘째, 정책을 내놓는 대신 아베가 오랫동안 품어온 신념을 솔직하게 밝힌 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책에 언급된 다음의 내용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아베 신조는 자신의 저서 『아름다운 나라로』에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이 책은 단순히 정책 제언을 위한 책이 아니다... 내가 10대, 20대 시절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 내가 태어난 이 나라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가졌는지, 그리고 지금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솔직하게 기록한 것이다¹²⁾.”

그리고 아베의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아래와 같은 부분이 주목된다.

“역사란 선과 악으로 완벽히 나눌수 있는,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다. ¹³⁾”

역사가 선과 악으로는 나눌 수 없다는 것이 아베의 솔직한 마음이라면, 그 마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된 것일까. 그 단초가 될 수 있는 것이 2006년 4월에 출판된 대담집 『아베 신조 대론집—일본을 말하다—』이다.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와 관련하여 한일, 한중 관계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아베는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 있다.

12) 앞의 책, 安倍晋三 (2006) pp. 231-232.

13) 앞의 책, 安倍晋三 (2006) p. 26.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 ‘아시아 국가들의 반발’이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됩니다. 그러나 아시아 국가중에서도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의 유도 요노 대통령은 저에게 ‘그 나라를 위해 싸운 병사들을 위해 지도자가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도 역시 이를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시아 국가들’이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고, ‘중국과 한국’이라고 해야 합니다¹⁴⁾.”

이어서 아베는 중국에 대해서는 “다양한 배경이 있어,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고, 한국에 대해서는 “일본과 전쟁상태에 있었던 적이 없으며 이는 식민지 문제이며 역사 인식 문제의 연장선에서 나타난 것¹⁵⁾”이라고 언급하였다.

중·일에 대한 답변은 모호하지만, 한·일에 대해서는 ‘전쟁이 아니라 식민지 문제’, ‘역사 인식 문제의 연장’이라고 쟁점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면 식민지와 관련한 역사인식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국가의 성립과정과 걸어온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완전히 동일한 하나의 역사 인식으로 공유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역사 인식이란 원래 그런 것이며, 각국이 각자의 역사인식을 갖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¹⁶⁾.”

2006, 2014년에 이어 2023년에 출간된 『아베신조회고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책은 원래 생전에 출간될 예정이었지만, 인터뷰를 진행한 하시모토 고로(橋本五郎)·오야마 히로시(尾山宏)에 따르면, 아베 총리가 한차례 출판 절차 중단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는 총리직 복귀를 고려했던 아베가 회고록에 포함된 민감한 내용의 공개를 주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¹⁷⁾. 그러나 위의 2.2.에서 언급하듯이 이 책은 2022년 7월 아베 서거 이후 그의 부인의 동의를 얻어 출판하게 되었다.

14) 安倍晋三 (2006) 『安倍晋三 対論集—日本を語る—』PHP研究所、pp.26-27.

15) 앞의 책, 安倍晋三 (2006) p.26-27.

16) 앞의 책, 安倍晋三 (2006) p.120.

17) 앞의 책, 安倍晋三 (2023) p.6.

이처럼 중요성이 높은 회고록을 통해 아베 총리의 역사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면 2015년 전후의 70년 총리 담화를 작성할 당시 아베 총리가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총리의 전후 50년 담화를 어떻게 해석했는지에 대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라야마 담화의 문제점은 선악의 기준에 서서 일본이 죄를 지었다는 전제로 사과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만을 보고, 죄송합니다. 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무라야마 담화는 마치 일본만이 식민지 지배를 한 것처럼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전에는 서양 각국도 식민지 지배를 했었습니다¹⁸⁾.”

아베가 ‘무라야마 담화’에 대해 ‘잘못’이라고 표현한 점은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담화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은 ‘사죄해야 할 행위인 식민지 지배를 한 것은 일본만이 아니다’라는 아베의 역사인식이다. 또한 “현재 시대의 가치 기준으로 과거의 침략이나 식민지 지배를 단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아베의 다음 답변은 주목할 만하다.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은 2019년 G7 정상회의에서(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 러시아를 비난) ‘침략이라는 용어를 가볍게 사용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영국은 역사상 지금 세계의 4분의1 나라들을 침략한 나라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역사학자로서의 깊은 통찰이었어요¹⁹⁾”

명확한 답변은 아니지만, 존슨을 ‘역시’라고 칭찬하는 것을 보면 아베가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침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에 신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베의 ‘침략’이라는 용어에 대한 민감성은 다음 문장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대동아공영권’이라는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이구상은 침략을 정당화하려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서구 제국주의로부터

18) 앞의 책, 安倍晋三 (2023) pp. 161-162.

19) 앞의 책, 安倍晋三 (2023) pp. 162-163.

아시아를 해방시킨다는 개념은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요?²⁰⁾”

아베의 역사 인식은 그가 저서에서 표현한 바와 같이 ‘사과해야 할 식민지 지배를 한 것은 일본뿐만 아니라 서구 국가들도 마찬가지’이며, ‘일본의 아시아에 대한 행위의 동기에는 서구 식민지 지배로부터의 해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면은 아베가 전후 70년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토로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100여년 전의 세계에는 서구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나라들의 광대한 식민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기술 우위를 배경으로 식민지 지배의 물결은 19세기 아시아에도 밀려왔습니다. 그 위기감이 일본 근대화의 원동력이 되었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일러전쟁은 식민지 지배하에 있던 많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인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²¹⁾.”

위의 “용기를 주었습니다”라는 부분에서 한국인에 대한 배려를 찾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또한, 그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에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실시한 것에 대한 아베의 언급도 주목할 만하다. 아베는 징용공 문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출 규제와 징용공 문제를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언급했다²²⁾. 이러한 외교적 변화의 배경에는 아베의 역사 인식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3.2. 이시바 시게루의 역사인식

아베는 2006년에 저서를 통해 자신의 역사 인식을 피력했으며, 이시바도 또한 이듬해인 2007년에 발간한 저서 『자민당의 뒷심』에서 역사 인식에 대해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시바는 ‘태평양전쟁에 대한 인식’이라는 소제목을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20) 앞의 책, 安倍晋三 (2023) pp.315-316.

21) https://warp.ndl.go.jp/info:ndljp/pid/10992693/www.kantei.go.jp/jp/97_abe/discourse/20150814d_anwa.html (검색일 : 2025. 1. 12.)

22) 앞의 책, 安倍晋三 (2023) p.366.

“저 생각으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인정’, ‘과거 전쟁에 대한 올바른 인식’, 그리고 ‘아시아 각국의 역사교육 현황과 그 국민들이 일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본은 앞으로 세계의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²³⁾

이 부분에서 언급된 ‘집단적 자위권’은 미일동맹을 상호호혜적인 동맹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일본이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방어에 나설 뿐만 아니라 반대로 미국이 공격을 받으면 일본이 미국을 방어하는 내용으로 동맹을 구성하여, 미일 양국이 대등한 관계를 지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만 보면 이시바는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추진하는 매파적 정치인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과거의 전쟁에 대한 인식이 확고하다’는 부분과 함께 고려해 본다면 일본의 과거를 미화하는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어 이시바는 2014년 자기 저서에서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논의할 때에는, 반드시 두 가지를 병행해야 한다... 첫째는 ‘지난 전쟁의 검증’이고 둘째는 ‘중국이나 한반도뿐만 아니라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일본이 과거에 행했던 일들을 검증하는 일이다’²⁴⁾”고 말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이름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시바가 이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계기는 “장관직을 맡기 전 싱가포르를 방문했을 때”의 경험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이시바는 당시 싱가포르 총리였던 리완유와 직접 만나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²⁵⁾.

“이시바 선생, 일본이 싱가포르를 점령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쇼난토(昭南島)라고 명명하고 신사를 세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군이 점령지에서 어떤 지배를 했는지 말해봐요.”

“..... 죄송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앞으로 일본을 이끌어갈 젊은 정치인이 그렇게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

23) 石破茂 (2007) 『自民党の底力』成甲書房、p.95.

24) 石破茂 (2014) 『日本人のための「集団的自衛権」入門』新潮社、p.104.

25) 石破茂 (2024) 『保守政治家-わが政策、わが天命-』講談社、pp.218-219.

인은 잊을지 몰라도 우리 싱가포르인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리관유 전총리와의 대화를 소개한 뒤, 이시바는 “저는 많이 부끄러웠다”고 말했다. 이 대화는 2018년의 스즈키 쓰요시(鈴木毅)의 인터넷 기사에 따르면 2003년 방위청 장관 재임 시절이었다²⁶⁾. 해당 기사에서 이시바는 리 전총리와 나눈 대화를 언급하며 스즈키에게 “저는 최근 중국과 한국의 2차 대전 중 및 이후의 역사를 공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과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에 대한 이시바의 역사인식이 한층 더 발전된 것으로 보이는 것이 2024년 8월에 출간한 저서 『보수정치인: 나의 정책, 나의 천명』²⁷⁾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시바는 호시 료이치(星亮一)의 소설 『야마구치타몬: 항모 히류우에 순직한 결단의 제독 (山口多聞: 空母飛龍に殉じた果斷の提督)』²⁸⁾의 아래 부분을 인용하며 논의를 이어갔다.

“메이지라는 국가 체제가 내포하고 있던 왜곡이 단번에 분출된 것이다. 무리하게 전쟁을 일으켜 나가오카²⁷⁾나 아이즈²⁸⁾를 공격하고 약탈했다. 이렇게 형성된 메이지 국가가 결국 폭주를 시작했다. 사람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하는 체제를 만들어 낸 것이다. 그런 점에서 나는 장개석(蔣介石)이 겪었던 고통을 깊이 이해할 수 있다.²⁹⁾ ”

‘무리한 전쟁’ 이라고 언급한 부분은 일본이 에도에서 메이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내전을 의미하고 있다. 현재의 가고시마현과 야마구치현이 중심이 되어 천황의 복권을 대의명분으로 내세우며 막부에 맞서 싸웠다. 그 과정에서, 막부를 지지했던 나가오카와 아이즈의 사람들은 전후에 패자로서 간주되어 가혹한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 대화의 화자는 태평양전쟁 중 일본 해군 연합함대 사령관인 야마모토 이소로쿠(山本五十六)이며, 청자는 소설의 주인공인 야마구치 타몬(山口多聞)이다. 항공모함 히류우(飛龍)의 함장인 야마구치는 1942년 미드웨이 해전에서도

26) 石破茂 (2024) 『保守政治家—わが政策、わが天命—』講談社、pp.218-219.

27) 현재의 니이가타(新潟)현의 일부.

28) 현재의 후쿠시마(福島)현 · 니이가타(新潟)현 · 토치기(栃木)현 3개 현의 일부.

29) 앞의 책 石破(2024) p.266.

활약한 야마모토의 부하였다.

이시바는 “이런 대화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이 부분을 인용하고 이에 공감을 표하고 있다. 동서의 아래 부분도 주목할 만하다.

“ ‘대만은 친일이지만 한국·북한이 반일인 이유는 조선인들이 은혜를 잊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는 극단적인 주장을 지금도 가끔 듣지만, 그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³⁰⁾”

“조선 출병으로 극도로 악화된 조선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도쿠가와 이에야스³¹⁾는 종종 조선왕조에 사자를 보냈고 통신사의 일본 방문을 간청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깊은 통찰에 배워야 할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³²⁾”

이시바의 역사 인식을 저서를 통해 살펴보면 메이지 이후 일본의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에 대한 행위의 어두운 측면(暗)을 직시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다. 그가 말하는 ‘어두운 측면’ 은 메이지에서 에도에 이르는 일본의 내전이라는 폭력이 해외에까지 미친 결과라고 이시바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이시바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침략 이후 조선통신사를 통해 에도막부와 조선왕조의 관계개선을 실현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의 담론에서 ‘근대의 어두운 면에 대한 직시’ 의 동전의 뒷면으로 ‘전근대의 명(明)에 대한 재평가’ 가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4. 나가기

본고는 1955년부터 현재까지 일본에서 장기간 집권당으로 정권을 유지해온 자민당의 정치문화의 다양성을 아베와 이시바 두 총리의 역사인식을 통해 분석하였다.

30) 앞의 책, 石破(2024) p.272.

31) 에도막부처대장군

32) 앞의 책, 石破(2024) p.275.

아베는 역사에 대한 접근방식이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인식을 갖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했다. 또한 역사문제는 예를 들어 야스쿠니 참배 문제와 같이 주로 일본과 한국, 일본과 중국 사이에 발생한다고 보았다. 반면, 이시바는 일본이 해외 각국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국가들 중에는 동남아시아도 포함되어 있다.

동남아시아에 대해 아베는 유도요노, 이시바는 리관유를 언급한 것도 흥미롭다. 유도요노는 2차세계대전 후 1949년에 태어난 인물로, 아베의 저서에서 야스쿠니신사참배와 관련해 “국가를 위해 싸운 병사들에게 지도자가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발언이 소개되고 있다.

한편, 리관유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인 1923년에 태어났고 일본의 싱가포르 점령을 경험했다. 이시바는 2002년 방위청장관에 취임함으로써 처음으로 각료가 되었는데, 이듬해 리 전총리가 “일본군이 어떤 점령지배를 했는지 이야기해 보라”는 말을 듣고 강한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두 총리가 영향을 받은 동남아시아 정상들의 발언은 대조적이며, 마치 아베와 이시바 양자의 역사 인식의 근거 차이를 상징하는 듯하다.

2014년 출간된 야쿠시지 가쓰유키(藥師寺克行)의 저서 『격론! 내셔널리즘과 외교—온건파는 어디로 갔는가—』에는 『무라야마 도미이치 회고록』을 편집한 야쿠시지와, 이시바를 비롯한 9명의 정치인과의 인터뷰가 실려 있다. 이시바는 야스쿠니신사참배에 대해 “가볍게 말할 수 없다...궁극적으로는 각자의 황실관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³³⁾”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도 하고 있고, 일본은 비교적으로 나은 편이라는 생각에 대해서도 ‘아이가 나쁜 짓을 했을 때, 나만 아니야 A군도, B군도 하고 있지³⁴⁾’라고 핑계대는 것과도 같다고 엄격하게 평가하고 있다. 참배를 당연하게 여겼고, 서양과 비교하여 역사를 인식하고 있던 아베와는 분명히 다른 견해를 보였다.

이시바의 역사인식이 일본의 근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근대의 어두운 면을 직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는 이시바가 에도에서 메이지로의 전환기에 발생한 일본의 내전이라는 폭력이 그대로 해외로 확산되었다는 취지의 소설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엿볼

33) 藥師寺克行 (2014) 『激論! ナショナリズムと外交—ハト派はどこへ行ったか—』講談社, p. 195.

34) 앞의 책, 藥師寺(2014) pp.186-187.

수 있다.

물론 이시바의 인식이 그대로 국민들의 인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식민지를 포기하라고 호소했던 이시바시 단잔에 관한 연구회가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³⁵⁾. 이 이시바시 단잔 연구회는 이시바시 서거 50년을 맞아 2023년 6월에 출범했으며, 2024년 12월에 열린 연구회에는 여당 의원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들도 참여하였고, 총 38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야당 의원 중에는 2024년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약진한 국민민주당의 후루카와 모토히사(古川元久) 대표대행도 포함되어 있어, 이시바가 의식하고 있는 이시바시 단잔의 사상이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들 사이에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시바 정권 하에서는 한국과 일본 간 역사 인식과 관련된 정부 간 대화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 노병호(2018) 「아베 신조와 기시 노부스케-기시 노부스케의 계승자임을 참칭하는 과정·방식·의의-」 『일본사상』 Vol.0 No.35, 한국일본사상학회, pp.201-232, pp.216-217, p.228.(DOI: <https://doi.org/10.30615/kajt.2018.35.8>)
- 신정화(2019) 「문재인 정권과 아베신조 정권의 ‘새로운 나라’ 만들기-불신과 갈등의 확산-」 『일본연구논총』 Vol.50, 현대일본학회, pp.116-142, pp.134-135, pp.137-138.
- 安倍晋三(2006) 『美しい国へ』 文芸春秋 (文春新書)、p.24、p.26、pp.231-232.
- 安倍晋三(2006) 『安倍晋三 対論集—日本を語る—』 PHP 研究所、pp.26-27、p.120.
- 安倍晋三、「内閣総理大臣談話」(首相官邸 2015.8.15.) <https://warp.ndl.go.jp/info:ndljp/pid/10992693/www.kantei.go.jp/jp/topics/2015/150814danwa.pdf>(검색일:2025.1.12.)
- 安倍晋三(2023) 『安倍晋三回顧録』 中央公論新社、p.6、pp.305-306、pp.161-162、pp.162-163、pp.315-316、p.366.
- 笹山大志 「石橋湛山に永田町注目「日本の針路考える」—首相や閣僚も研究会参加—」(朝日新聞 2024.12.13.기사) https://digital.asahi.com/articles/ASSDF3PGFSDFUTFK00XM.html?iref=subscribe_done(검색일:2025.1.11.)
- 石破茂他(2007) 『自民党の底力』 成甲書房、p.95.

35) https://digital.asahi.com/articles/ASSDF3PGFSDFUTFK00XM.html?iref=subscribe_done(검색일: 2025. 2. 9.)

石破茂(2014)『日本人のための「集団的自衛権」入門』新潮社、p.104.

石破茂(2018)『政策至上主義』新潮社、pp.77-81.

石破茂(2024)『保守政治家—わが政策、わが天命—』講談社、pp.218-219、p.266、p.272、p.275.

石破茂、「第 216 回国会における石破内閣総理大臣所信表明演説」(首相官邸 2024.11.29)

<https://www.kantei.go.jp/jp/103/statement/2024/1129shoshinhyomei.html>(검색일: 2025.2.11.)

石破茂、第 217 回国会における石破内閣総理大臣施政方針演説(首相官邸 2025.1.24)

<https://www.kantei.go.jp/jp/103/statement/2025/0124shiseihoshin.html>(검색일: 2025.2.11.)

信田智人(2018)「安倍晋三首相と日本の外交・安全保障政策」『国際安全保障』46 (1)、国際安全保障学会、pp. 68-87.

鈴木毅、「日本は民主主義の危機にある—石破茂氏に聞く自民党のいま—」(Yahoo! ニュース 2018.6.25.기사) <https://news.yahoo.co.jp/feature/994/>(검색일:2025.1.12.)

東郷和彦(2018)「安倍晋三の『戦後レジームからの脱却』—文化と伝統の視点から—」『京都産業大学世界問題研究所紀要』30 巻、京都産業大学世界問題研究所、pp. 3-12.

薬師寺克行(2014)『激論! ナショナリズムと外交—ハト派はどこへ行ったか—』講談社、pp.186-187、p.195.

堤一直(2015) 张东方역、「通过安倍主要演讲和著作看其对中韩的认知」『东北亚论坛』No.6、2015 Total No.122、《东北亚论坛》编辑部、pp. 114-123、p.115.

논문 투고 일자 : 2025. 01. 12.

논문 심사 일자 : 2025. 01. 20.

게재 확정 일자 : 2025. 02. 06.

<要旨>

日本自民党の政治文化の多様性に関する分析
－安倍晋三・石破茂両総理の歴史認識より－

堤一直

本稿は1955年から現在までの大半の期間、日本で与党であり続けた自民党の政治文化における多様性を、明治時代から第2次世界大戦以前までの日本の海外への行為に対する安倍晋三と石破茂両総理の認識を通じて、考察した。安倍と石破は2000年代前半から閣僚を務めた後、自民党の総裁選挙で互いに3度戦った政治的ライバルであった。

両者の著書等を検証した結果、安倍の歴史認識とは、歴史に関する捉え方は国によって異なり、かつ歴史問題は主に日本と韓国、日本と中国の間に存在するというものであった。一方、石破は日本が韓国、中国、そして東南アジアとの間の歴史をしっかりと学ばなければならず、かつ自国を西欧と比較したうえで侵略を正当化してはならないと考えていた。石破は、江戸から明治にかけての日本での内戦という暴力が海外にまでもたらされたという認識に共感してもいた。

以上より、石破政権下で韓国・日本両政府間の歴史認識を巡る対話が促進されることが予想される。

An Analysis of the Diversity of the Political Culture of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of Japan
－Through the Historical Perceptions of Prime Ministers Abe and Ishiba－

Tsutsumi, Kazunao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diversity of the political culture of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LDP), which has long ruled Japan (since 1955), through the perceptions of two Prime Ministers, Shinzo Abe and Shigeru Ishiba, and their beliefs about what Japan did abroad from the time of Meiji to World War II. As both were first appointed ministers in the 2000s, they competed three times in the LDP presidential election as political rivals.

A review of their writings reveals that Abe's perception is that each country has its own recognition of history; that historical problems exist mainly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and Japan and China.; in contrast, Ishiba's view is that Japan should learn from the history of South Korea, China, and Southeast Asia. Ishiba also sympathizes with the idea that the violence of civil wars in Japan from the Edo to Meiji period had been brought in from overseas.

Therefore, South Korea-Japan dialogue on historical recognition under Ishiba administration will likely be promoted.